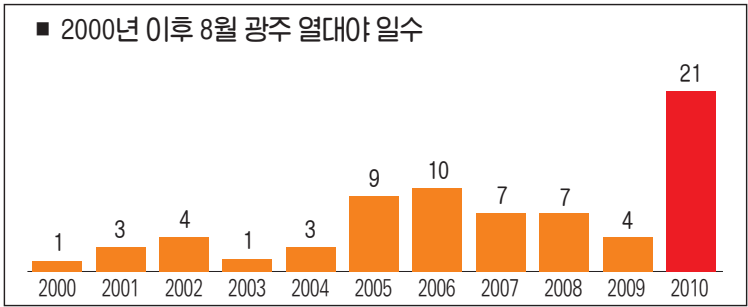


가마솥 8월...38년만에 가장 더웠다

광주 30도 이상 27일...전남보다 무더위 극심

광주·전남의 올해 8월은 38년 만에 가장 더운 달이었다. 열대야 일수도 평년보다 세배 가량 많았고,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을 보인 날도 빈발해 8월 한 달은 그야말로 낮·밤을 가리지 않은 엄전(炎天)의 계절이었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분석한 '최근 1개월 기후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은 27.3도로 평년(1973~2000년)보다 1.6

도나 높았다. 이는 1973년 이래 최고 평균기온으로 최근까지 가장 무더웠던 것으로 기록된 지난 1994년(27.2도)보다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8월중 광주·전남에 발생한 열대야 일수 역시 12.8일로 최근 10년 평균(3.6일)보다 세배에 가까운 9.2일이나 많고,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8월중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



았던 날 역시 22.8일로 평년 17일보다 5.8일 많았다. 강수량과 강수일 수도 모두 평년

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8월 한달 동안 광주·전남의 평균 강수량은 388.6mm로 평년(249.7mm)

에 비해 138.9mm 많은 비가 내렸으며, 강수일 수는 16.3일로 비가 내린 날이 평년(11.7일)보다 4.6일 많았다. 8월 광주·전남 일조시간은 150.8일로 평년에 비해 55.6시간 적었다. 이는 많은 양의 비가 자주 내림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조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주는 전남보다 무더위가 더욱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했던 날은 총 27일, 열

대야 현상이 나타났던 날은 총 21일이었다. 이는 한 달 동안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하였던 날은 4일에 불과했으며,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 더위를 느끼지 않고 수면을 취할 수 있었던 날도 10일 미만이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광주·전남은 9월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소음 때문에 창문 못 열고 무더위 고통”

광산구 우산동 장갑공장 인근 주민들 방음벽 설치 등 요구

주택가에 위치한 장갑공장이 심야에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해 공장 입주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함은 물론 잠을 자기도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공장측은 24시간 가동하는 장갑공장의 특성상 소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우산동에 사는 윤모(73)씨 등 주민 7명은 최근 집 주변에 있는 장갑공장에서 흘러나온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등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며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윤씨 등은 민원신청서에서 “지난 2008년 초 장갑공장이 막 생겼을 때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방음벽이 있었는데, 최근에 공장 측에서 방음벽을 제거한 뒤 소음이 심해졌다”며 “24시간 동안 공장을 운영하는 탓에 시끄러워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위로 창문을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갑공장 측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장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창문을 열어 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갑공장 관계자는 “장갑공장은 어느 곳이나 24시간 운영된다. 장갑을

짜는 기계인 장갑편집기 40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공장 실내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방음벽을 제거하고 창문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과 장갑공장의 갈등이 계속되자 광산구는 일단 공장 측에 방음벽 재설치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공장 측이 방음벽을 다시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현장 소음측정을 한 뒤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20조3항)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의 야간 소음기준은 45dB 이하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추석 상차림 이렇게

3일 오후 광주시 남구 광주향교에서 향교 청년·여성유도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명절 전통 상차림 시연회'가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학교 안전시스템 강화 했다더니

배움터지킴이 등 성범죄 잇따라...청원경찰 배치 등 근절책 시급

‘고흥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사건으로 지목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항소심에 와서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1심까지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며 “박씨의 진술은 박씨의 뜻에 따라 나왔고,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시신의 상태 등과 들어맞아 유죄판단의 증거로 삼을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자백을 강요가 아닌 박씨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믿을 만한 것으로 봤다. 이는 박씨 자백의 임의성과 객관성을 인정한 것으로, 1심 판단을 뒤집는 사유가 됐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박씨가 재판과정에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나 재판 내역이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도 불충

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1월 9일 밤 10시30분께 고흥군 조모(당시 65)씨 집에 들어가 조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대나무밭으로 옮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0여년 전 박씨가 비슷한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풀려난 적이 있고, 피해자 집에서 박씨의 우산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다시 수사, 사건 발생 8년 만인 지난해 박씨를 기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주지법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수용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이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1심 분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전북도교육청은 신청인들이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평등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상황에서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의 회복할 수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사

- ◇광주 광산구 ▲4급(서기관)전보 ▲자치행정국장 홍화성 ▲의회사무국장 박양수
- ◇5급(사무관)전보 ▲기획관리실장 박현식 ▲감사법무담당관 임순모 ▲총무과장 오경수 ▲세무1과장 최환연 ▲회계관리과장 배성수 ▲민원봉사과장 임동명 ▲평생학습과장 김현순 ▲주민생활과장 박기욱 ▲지역경제과장 박영철 ▲교통과장 김희일 ▲송정1동장 김선동 ▲어룡동장 최유운 ▲우산동장 김일태 ▲수완동장 오순근 ▲본량동장 직무대리 정병석 ▲도시개발과장 오금열 ▲건축과장 김영국 ▲재난안전과장 서기조 ▲지역특화개발과장 남상철 ▲임곡동장 정대권

해 3월 임명된 뒤 올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움터지킴이이는 초·중·고교에 상주하면서 폭력에방 업무를 맡는 자원봉사자로, 주로 퇴직 경찰이나 교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광주에는 초등학교 52곳, 중학교 77곳, 고교 32곳 등 163곳에 170명의 배움터지킴이가 활동 중이다. 경찰은 또 광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남학생을 성추행한 윤모(4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 학교 학생 C(9)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밤에는 여수의

한 고교 화장실에 30대에 추정되는 괴한이 침입해 자율학습을 하던 D(17·2년)양의 목을 조르고 달아났다. 당시 학교에는 경비원은 20여명의 교사가 있었지만 아무도 괴한의 침입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광주시 동구 모 초등학교에서도 20대 남성이 대낮에 초등학교를 학교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는 사건 당시 경비원이 근무 중이었고, 3대의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 배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모텔 옥상 화재

3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한 모텔 옥상 보일러실에서 불이나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3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최대 외화 50%환인 / 월별 잔액 2천 원 / 주·월·연별 2천 원 / 특약 혜택 1만 원

하나SK 카드

하나SK카드 Touch 1

5417 0725 5678 7032

HANASK KIN SHIN YONG

07/12

Master Card



항암제 보험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내달부터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해 온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등 암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암 환자가 2개 이상의 항암제를 함께 투약할 경우 비싼 항암제는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한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저렴한 항암제도 모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또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텍스도 보험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실형 판결 불만 40대

범원 화장실서 자해

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원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3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피고인 황모(44)씨가 전날 오전 9시45분 광주시 동구 자산동 광주지법 404호 법정 내 재소자 대기실 화장실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황씨는 자해 직전 수감을 한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 변기에 이마를 수차례 부딪치는 등 자해했다. 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폭행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이 인정돼 이날 징역 3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황씨는 ‘여지러워서 쓰러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형 선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위난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교도관들이 미처 제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내 얼굴 왜 흉보” 동료 폭행

“...‘얼굴이 못생겼다’며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 직장 동료를 폭행한 50대 식당 여종업원이 경찰서형.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 이모(여·55)씨는 지난 2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자살이 일하는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 최모(여·54)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최씨가 최근 다른 동료에게 자신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쾌해 폭행했는데, 경찰에서 “지가 뭘대 남의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